

교회 3대 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주간충현

•교회성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
나이다(시 18:1)"

•이주일의 말씀•

"할렐루야 여호와와 종들이 찬양하라
여호와와 이름을 찬양하라"(시 113편1절)

인 / 이종윤, 편집인 / 윤명식, 편집국장 / 손경수 발행소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주간충현」 신문사 소석관 112호 (135-0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Published by Choong Hyun Presbyterian Church, Seoul, Korea. 대표전화 552-8200, 팩시밀리 552-2925, 편집국 직통전화 554-1615

제3회 교구찬양경연대회 성료

합창 믿음상 에 제11교구 중창 1등에는 제14교구가 차지

교회 설립 제36주년 기념 제3회 교구 찬양경연대회가 지난 9월9일 오후2시 18분 본당에서 개최되어 합창부문 믿음상 1등에 제1교구(교구장: 김은호장로, 지도교역자: 김익목사, 최명자전도사, 찬양준비위원장: 문환장로, 지휘: 임창식집사, 반주: 이영희(생))가 차지했다.

이날 찬양경연대회에 앞서 1부예배를 교구위원장 우기전장로 사회로 진행, 구명신전도의 기도, 성경시편 150편 6절 봉독 후 이종윤임목사가 "할렐루야"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목사는 설교에서 "할렐루야로 여호와께 찬양하고 또 기도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정직한 자가 마땅히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을 기쁨으로 불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2부 찬양경연대회는 차신득장로 사회로 진행, 김학진목사(제2교구 지도) 시작기도, 문환장로(심사위원장), 심사규정 발표 이후 순대로 찬양경연대회를 진행했다.

14개 교구에서 약 1,200명의 교구찬양대원 참가하여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의 대단 실력들이 과시되었는데, 심사위원 전원일의 심사결과가 다음과 같이 발표되었다.

▲합창부문: 믿음상(1등): 제11교구(자유: 선하신 목사, 소망상(2등): 제3교구(자유: 누구든지 알지요), 사랑상(3등): 제1교구(자유곡: 감사와 찬송).

▲중창부문: 믿음상(1등): 제14교구, 소망상(2등): 제2교구, 사랑상(3등): 제3교구

성경연구원

주간성경공부 수강 계속 받아

성경연구원은 제2학기 주간성경공부 등록·지난주간 마감했으나, 계속 수강을 원하는 분이 있어 마감에 관계 없이 등록금을 접수하기로 했다.

현재 주간성경공부(각 과목별)에는 360명이 등록을 완료했으며, 교사 양성부에는 13명, 그리고 제자훈련에는 933명이 참가신청을 했다.

현재 월요일 오전10시에 있는 김주아 전도강의인 「최선의 삶」에는 150여 명의 수강이 쇄도해 강의실을 소석관 301호에서 다니홀로 장소를 바꾸었다.

수강자의 착오없기를 바란다.

아담반 성경공부 9월8일부터 개강

매주 금요일 새벽기도 후(새벽 6시15분~7시15분) 실시되는 아담반 성경공부가 지난

8일 개강되었다. <9월15일은 휴강>

선교관 지하 만나홀(식당)에서 갖는 아담반 성경공부의 강사는 이종윤 위임목사이다.

하반기 장학금 수여식 9월17일 주일찬양예배시

교회는 1989학년도 하반기 장학금 수여식을 9월 17일 주일저녁 찬양예배시 갖는다. 대상자는 수여식에 꼭 참석해야 한다.

목회자 세미나 9월18일(월) 개강

교회개신과 성장을 위한 "목회자 세미나" 제3학기가 9월18일 오후2시 본교회 본당에서 개강된다.

한국교회 성장연구원(원장 이종윤목사)이 주관하는 동 목회자 세미나는 초교파적으로 전국의 목회자가 수강을 하고 있다.

지난 2학기엔 1,700여 명이 등록과 함께 수강을 했으며, 이번 제3학기에도 많은 목회자들의 수강신청을 했다.

제3학기는 "목회, 신학, 교육"이 주제이며, 이종윤 위임목사가 「성경적 교회론」을 오는 11월20일까지 13시간을 강의한다.

매주 월요일 오후2시마다 강의되는 목회자 세미나 제2교시 강의 제목과 강사는 다음과 같다.

△현대신학의 동향과 그 전망(이보민 교수), △성경신학의 동향과 전망(권성수 교수), △기독교 교육의 문제점과 대책(은준관 교수), △칼빈의 신학과 목회(이형기 교수), △신학교육과 목회(김명혁 목사), △신학과 이데올로기(김영한 교수), △제자훈련의 방법(옥한흠 목사), △교회교육의 신학적 기초

남·여전도회 지원처 110개 처로 늘어 「만민에게 복음전도」 위한 구체안 실천

본교회 남·여전도회 70지회에서 지난 6월17일 지원처교회가 98개처에서 9월9일 현재 110개처로 늘어났다.

불과 2개월만에 12개 처가 늘어난 것은 우리교회가 목표하고 있는 「만민에게 복음전도」의 확산이 아닐 수 없다.

지난 8월 정기당회에 보고된 지원처 교회 명단은 다음과 같다.

▲지교회 추가(5개 교회에서 6개 교회로) 송학교회 이용호목사: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송학1리 287(디모데협의회)

▲지원교회 추가(30개 교회에서 43개 교회로: 지원교회 한 곳이 지교회로 됨)-42개 교회

(정일웅 교수), △기독교 교육과 목회(주선애 교수), △웨슬레의 신학과 목회(조종남 교수).

성민교회 이종희목사: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진3리 76-2(디모데10지회), 금척교회 박성택목사: 경북 경주군 건천읍 금척리 625(에스터2지회), 화도교회 김정숙전도사: 전남 고흥군 도양읍 녹동 하화도(바울협의회), 부곡교회 이종석전도사: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부곡2리 22(디모데14지회), 봉천교회 김영철목사: 경북 금릉군 남면 봉천1동 1081(디모데8지회), 성민교회 송종석목사: 강원도 춘천시 후평2동 810-12(바울14지회), 거학교회 이회도목사: 경남 거창군 소재(고등부 지원), 예동교회 김성찬목사: 경남 거창군 소재(청년1, 2부 지원), 서송원교회 민춘화전도사: 충북 영동 황간 소재(중등부 지원),

송계리교회 한주석전도사: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867(에스터12지회), 봉정교회 유남표목사: 강원도 정선군 북면 봉정리(에스터3지회), 미산교회 원인식전도사: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읍치리(에스터11지회), 시동중앙교회 하형남목사: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시동2리(바울2지회)

▲위탁교회 추가(14개 교회에서 16개 교회로: 위탁교회 2곳이 지원교회로 됨)-14개 교회

가곡교회 이준식목사: 강원도 원주군 지정면 가곡리 21(무기명), 서넙도교회 김부성전도사: 전남 완도군 서넙도 서리용축리(김석윤 권사)

원고모집

「주간충현」은 성도 여러분들의 원고를 언제든지 접수합니다.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 모든 내용을 투고해 주시면 정성으로 편집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주간충현 편집국



▲ 교회설립 제36주년 기념 교구찬양경연대회 모습

카메라초점



▲ 믿음상을 탄 제11교구 찬양대원들(100명)

이종윤위임목사의 수요일예배 성경강해 시리즈 ⑪



본문: 요 6장 22~27절

기독교 2천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주후 400년 경에 살았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신학과 아울러 참회록으로 우리 앞에 위대한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신, 불신 간에 이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이 없을 만큼 참회록은 고전으로 우리 앞에 남겨져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하여 나를 조성하였나이다’ 이 구절은 참회록 가운데 보석 중의 보석과도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하여 나를 창조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창조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입니다.”라고 고백할만한 신앙의 경지에 들어간 사람이라면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과 그의 뜻에 있을 것입니다.

1. 스스로 만날 수 없는 하나님

인간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쉬임없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독교 진리가 불교나 여타의 종교와 다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불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 보려고 노력을 하는 종교이지만 유감스럽게도 신이 없는 것이 불교입니다. 불교는 무신론 사상이므로 공산주의와도

주님보다 앞세운 관심사는 책망감만돼

타협할 수 있고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 오시어서 우리에게 자기를 보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인간 가운데 하나님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도 아니하고, 만나게도 못했다고 하는 것이 파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영원한 진리입니다(롬 3:10, 11).

우리는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내 눈 앞에 있는 성경책을 읽으려 해도 내게 눈이 없으면 읽을 수 없습니다. 또 눈이 있다 할지라도 빛이 비치지 않으면 읽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이해할 수도,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없이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전 12:3)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큰 은혜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무에게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 밤중에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이튿날 광야에 남아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가버나움으로 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 결과 보다 중요한 동기

우리가 예수님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무섭게 책망을 받았습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26절).

예수님께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일생 일대의 관심사

폭로시키시는 배후에는 그들의 동기를 물으시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결과를 가지고 따지려고 합니다. 결과가 좋으면 된다고 합니다. 선교사를 보내놓고 10년 지나 열매가 없으면 불려들이 자고 합니다. 그러나 열매는 주님이 맺으시는 것이요 중요한 것은 동기입니다.

교회에 와서 일도 하고 구제도 하는 데 복을 치면서 “자, 내가 이제부터 구제를 한다” 하니까 주님은 희철한 무덤 같다고 책망을 하십니다. 구제는 원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아름다운 “내가 금식기도한다”하고 광고를 하니까 위선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동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견딜 수 없어서, 정발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지 아니면 어떤 결과를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이름이 자꾸 높아지고 거기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봅시다.

3. 주님 애인 관심사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다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주님의 칭찬을 받지 못하고 책망을 받았습니

(1) 그들은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군중들의 지대한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고된 배를 채우기 위해서만 예수님이 필요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어떤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동기는 좋지 않습니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거나 활용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인간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우선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 보다 앞설 때 책망감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목적을 확실히 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2) 무리는 물질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찾긴 찾았는데 주님 보다 물질에 대한 관심을 더 쏟았기 때문에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

아이성에서 아간은 전리품을 감추었습니

마음의 동기는 드러난 결과보다 중요

다. 물질 조그만 것 하나 감추었다가 자기도 망하고 민족도 어려움을 당하게 하였습니

다. 성경에 가르치기를 ‘물질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하였습니

다. 신약시대에도 돈 때문에 망한 사람이 있습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것을 가졌다. 그러나 그는 아무 것도 소유하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가 그에게서 배워야 할 진리입니다. ‘아무 것도 소유한 적이 없다’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는 청지기로서 당분간 관리하는 것 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물질관입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한 관심을 지나치게 갖는 이유는 물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즈음 땅값 올라가치고 내 땅 내 땅 하지만 내 땅은 없습니다. 모든 물질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내어 놓을 것 뿐입니다. 바치려 하면 바칠 것 뿐입니다.

예수님을 찾아 온 무리도 물질에 대한 관심이 주님에 대한 관심보다 앞서다가 책망을 받았습니

다. 우리는 항상 모든 것보다 주님에 대한 관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3) 무리는 반심 뿐인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심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반심만 주면 남편은 불쾌해서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반심도 아니라 전심입니다(삼상 7:3; 대하 16:9; 렘 29:13; 시 86:12).

갈릴리 군중들은 주님을 찾고 있었지만 전심으로 찾지를 못했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온 그들에게 두번씩 먹을 것을 주시지 않자 그들 중 많은 사람은 물러갔습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생 일생 살아가는 동안 관심사가 많습니

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하나님과 그의 일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길과 진리되시

다. 주님 앞에 있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욕구 충족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찾되 전심으로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일생 일대 관심은 오직 주님께 있어야 합니다.

에바다 수화교육 안내

대상/ 수화교육에 뜻이 있는 성도
교육기간/ 9월 18일~11월 25일
모집기간/ 8월 13일~9월 17일까지
(초급반·중급반·고급반)
접수처/ 소석관 109호(에바다 사무실)
※등록금 없음
교회학교 에바다부

본교회 제직사진첩 급년내로 발간예정

직분자 사진촬영 계속, 사진 안찍은 분 열람을!

본교회에서 펴낼 「제직사진첩」이 급년내로 발간을 앞두고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많은 직분자들(집사 이상)이 사진촬영에 협조해주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나 아직도 일부 직분자들이 사진촬영을 하지 않은 관계로 사진첩 발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서 오는 주일부터 본인 사진촬영 여부를 확인키 위한 열람을 실시한다.

본당 로비 입구 우측에 마련된 임시 사진촬영실에 들러 열람과 확인 절차를 밟고, 만 사진이 없을 경우 현장에서 촬영토록 배려한다.

중등부 「장터」이익금
지난주일 사랑부에 전달

교회학교 중등부(부장: 엄필성장로)는 지난주일 중등부 수양회 때(7월 28일~29일) 가져다 “충천 놀이마당”에서 모인 이익금(26만3천원)을 지난 10일 사랑부에 전달했다.
중등부 학생 대표가 사랑부(부장: 이종영장로, 지도: 이원길목사)를 방문하여 이익금을 전달했다.

교회설립 제36주년 기념행사 안내

선교옹변대회·성경암송대회·성극경연대회

각 부분별로 준비위원회 구성하고 준비에 바빠

교회설립 제36주년 기념행사인 선교옹변대회와 성극경연대회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다.

▲ 선교옹변대회

①목적: 시온성대행진을 마친 충현의 전가 족은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임을 확신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중언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고자 함에 본 선교옹변대회의 의의가 있다.

②일시: 1989년 9월 24일(주일) 오후3시

③장소: 갈렐리홀

④주관: 교육위원회 선교옹변대회 준비위원회

⑤협찬: 세계선교회

⑥조직: 대회장: 이종윤목사, 부대회장: 오태희·김차생장로, 지도: 윤용규목사, 준비위원장: 엄필성장로, 부위원장: 이영세장로, 회계: 김재명장로, 총무부장: 손동운장로, 차장: 황의만집사, 홍보부장: 이훈장로, 차장: 이동명집사, 동원부장: 최무길장로, 차장: 양종섭집사, 심사위원장: 김학진목사, 심사위원: 조인재, 정하우, 김천재장로, 정홍식집사

⑦진행계획

가. 대상: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 1, 2부, 직장전도부 전원

나. 주제: 민족복음화, 공산권선교, 세계선교 중 택일

다. 제한시간: 중등부, 고등부-5분, 대학부, 청년1, 2부, 직장전도부-7분

라. 실시요령: 원고제출은 9월10일까지 제출.

① 예선(9월17일) 각 부서별로 실시하며, 1등, 2등, 3등, 장려상(2명)을 선발하여 그 중 2팀-3팀을 본선에 출전시킴.

② 본선(9월24일) 각 부서에서 선발된 자가 참가하며 예상인원을 12명-16명으로 한다.

마. 심사요령: 본선 심사는 제1부, 2부로 나누며 제1부는 중등부·고등부(학생 수가 많음), 제2부는 대학부, 청년 1, 2부, 직장전도부 포함.

바. 시상: 대상 1명, 1부: 1, 2, 3등, 2부: 1, 2, 3등,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

▲ 성극경연대회

①목적: 교회설립 제36주년을 맞이하여

교회목표 제1항인 천국일군 양성에 따른 교회학교 학생들의 신앙성장, 훈련 그리고 믿음의 진보를 극화를 이용하여 실천적으로 체험토록 하며,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데 본 경연대회의 의의가 있다.

②명칭: 교회설립 제36주년 기념 성극경연대회

③일시: 예선-1989년 10월7일(토) 오후1시, 본선-1989년 10월 8일(주일) 오후3시.

④장소: 본당1층 갈렐리홀

⑤주관: 교육위원회 성극경연대회 준비위원회

⑥조직: 대회장/이종윤목사, 부대회장/오태희장로, 김차생장로, 준비위원장/손경수장로, 준비위원(지도)/윤용규목사, 회계/김재명장로, 총무부장/윤성철장로, 차장/김환기집사, 위원/박영엽권사, 이인선집사, 심사부장/박승준장로, 차장/황의만집사, 위원/조혜순집사, 진행차장/양종섭, 황영일, 임무천집사, 위원/이동명집사.

⑦참가자 신청안내

가. 참가자격: 본교회 교육위 산하 중등부 이상(한 부에서 두 팀 이내)

나. 성극내용: 신·구약 성경의 사건, 인물

중심 및 기독교 복음에 배치되지 않는 성극.

다. 소요시간: 15분.

라. 구비서류: 참가신청서 1부(소정양식), 대본(사본) 1부, 출연자 명단(스탬, 케스트 포함) 1부.

마. 심사 및 시상

①심사위원: 성극 및 연극분야의 사계 권위자 약간명(명단 추후 발표)

②시상: 대상(1팀: 당회장상/상패 및 부상), 우수상(2팀: 교육위원장상/부상), 장려상(3팀/상패 및 기념품), 참가상(기념품).

(※대상 수상팀 저녁예배시 전교인 앞에서 특별공연하며 "주간충현"에 "금주의 인물"로 소개할 예정임.)

바.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성극 준비위원회(소석관 112호, 교환전화 416번으로 문의하기 바람)

▲ 전교인 성경암송대회

①목적: 시온성대행진을 마친 충현의 전교인이 거듭나고 성숙한 신자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천국시민으로 이 땅에서 바로살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면서 말씀의 생활화에 있으므로 본

성경암송대회의 의의가 있다.

②일시: 1989년 10월 1일(주일) 교회학교 집회(별지)

③장소: 교회학교 집회실(별지)

④주관: 교육위원회 전교인 성경암송대회 준비위원회

⑤조직: 대회장 이종윤목사, 부대회장 오태희장로, 김차생장로, 지도 윤용규목사, 준비위원장: 박승준장로, 서기 이종국장로, 회계 김재명장로, 총무부장 차신득장로, 차장 원용철집사, 위원 박영엽권사, 박효지집사, 심사부장 박영식장로, 차장 김여순집사, 위원 김영수집사.

이번 성경암송대회의 암송 범위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총 111절이다.

고교입시 연합고사위환학부모초청 기도회

교회학교 중등부는 3학년 학생들의 고입연합고사를 위해 수험생의 부모들을 초청해 학생들과 함께 합심기도회를 갖는다. 오는 9월24일 12시30분에 소석관 507호에서 있을 이번 기도회에서는 "고학력 성취를 위한 학습요령과 지도"라는 특강이 있는데 강사는 현재 학원 원장이며 중등부 3학년 학년 과장인 김창동집사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한자리에 앉아서 기도드리며 예배로 수험생과 학부모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충현프리즘

☆ 은혜로운 교구찬양 경연대회

교회설립 제36주년을 기념하는 교구 찬양경연대회는 너무나 너무나 은혜가 넘쳤다.

주의 백성(성도)들이 기도하며 부르는 헌신과 기쁨의 찬양은 듣는 자와 보는 이의 가슴을 찡하게 했다.

각 교구마다 지도교역자, 교구장, 지역장 장로 및 권사, 그리고 남·여전도회 회장들이 앞장서서 준비에 열을 올렸고, 대회 당일 1주 전부터는 주·야를 가리지 않고 소석관에서 찬양연습에 열중해 기존 찬양대를 무색케 할 정도로 열심이 대단했다.

대회 당일의 본당 안에는 울긋불긋한 형형색색의 치마, 저고리를 입은 제2·6·7·10·11교구 여성도들의 모습으로부터 단복으로 산뜻하게 차려입은 제1·5교구의 멋진 유니폼, 모두가 보기에 좋았다.

특히 제5교구는 빨간 점막이 스카프에 빨간 피스까지 들고 불같은 성령의 찬양을 불러 이채로웠다.

제6교구와 제7교구는 어깨띠까지 마련하여 교구 P.R 과시를 유감없이 발휘했으며, 모든 교구들이 유니폼에도 대단한 신경을 쓴 느낌이 든다.

한복으로 곱게 차려입은 충현의 여성도들, 모두가 미스코리아(미스 천국백성) 감이다. 이쁘고, 예쁘고, 지성미가 넘치고, 이날 심사위원회의 심사평을

요약해 보면, "찬양을 하다보니 기쁨이 넘치고, 14개 교구 모두가 특징이 있어서 우열가리기가 곤란하며, 천국에선 찬양만 있을텐데, 바로 여기가 천국인듯 느껴진다."면서 심사기준을 가사의 표현 전달, 남·녀 찬양대원의 구성비율, 실력 보다는 은혜 위주에 두었음을 밝혔다.

특히 각 교구가 자유곡으로 선택한 곡목도 "선하신 목자"(제11교구), "누구든지 알지요"(제3교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제13교구), "주의 사랑으로"(제8교구), "나는 시온성을 향해 가겠네"(제6교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제10교구), "신앙 예수 오실 때"(제4교구), "불같은 성령"(제5교구), "여호수아 성을 쳤네"(제1교구), "감사와 찬송"(제14교구) 그리고 찬송가 375

장(제7교구), 311장(제2교구), 49장(제9교구), 364장(제12교구) 등으로 모두가 가사와 곡이 은혜가 넘치는 것들이었다.

☆ 행주질하는 남 집사

매주일 교회식당(만나홀)에 내려가 보면 모든 교우들이 식사 끝난 후 식탁에 버려진 음식찌꺼기를 행주로 깨끗이 치우는 남 집사 한 분이 계신다.

연세도 꽤 들어 보이는 이분은 누가 보든지 말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이곳저곳을 다니며 흐트러진 음식찌꺼기를 행주로 닦는 일에 말없이 봉사하고 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쁨으로 자원봉사하는 이분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제2회 장애인돕기 자선바자회

10월20~21일 본당 옆 광장서 개최

구제위원회는 충현교회 설립 제36주년 기념 및 장애자를 돕기 위한 자선바자회를 오는 10월20일부터 21일까지 본당 옆 광장에서 개최한다.

성도 간의 사랑의 친교, 교회의 성숙된 모습과 각 교구간의 협동심, 그리고 구제사업을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는 동

자선바자회는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갖게 된다.

금년도에도 약 5천만원 정도의 순이익을 판매목표로 개최되는데, 각 교구별로 제정품목(식당메뉴), 권유품목(과일·농산물·견어물), 그리고 직영점으로 교회열매, 컵, 도자기, 액자, 각종 식품, 기념품 등으로 분류하여 판매를 추진시킬 예정이다.

이 일을 위하여 대회장에 이종윤 위임목사, 부대회장에 각 교구목사, 각 위원회 위원장을 위촉 했으며, 바자회 운영위원장에는 오진국장로가 선임되었다.

또 운영위원으로는 각 교구장 장로, 여교역자, 남여협의회 회장단, 그리고 사업부와 행정부로 실무책임자를 맡겨 효과적인 판매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직원채용 공고

본 교회 사무국은 다음과 같이 교회직원을 채용한다.

모집부문 / ① 보일러공·유경원자 약간명 ② 미화부 직능(남)·약간명 ③ 사무원(여)·예상고 졸업자

구비서류 / ① 이력서 1통 ② 교인증명서 1통 ③ 주민등록 등본 및 자격증 사본(①, ③항) 1통

제출처 / 교회 사무국

충현교회 사무국

충천도서관 신간안내

충천도서관은 9월 중 종교(신학일반) 서적을 비롯하여 기독교 신학, 강해, 기독교 윤리 및 철학, 기독교 교육, 교회론 및 헌신신학 등의 신간을 구입하여 장서했다.

도서목록은 다음과 같으며,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다.

■ 종교(신학일반)

△20세기 종교 사상/ 존 매쿼리, 나눔사, △세계 종교의 이해, 조지 브라스웰, 요단출판사, △기독교와 문화/ 김득용 등저, 충신대학 출판부, △세계의 종교들/ 노오만 앤더슨, 생명의 말씀사, △문학과 종교의 대화/ 최중수 편, 기독교지혜사, △현대를 위한 기독교 변증/ 윌리엄 더니스, 한국 기독교학생회 출판부, △경건주의 이해/ 데일 브라운, 생명의 말씀사.

■ 기독교 신학(교리 및 성경)

△구원론/ B.B. 워필드, 엠마오, △가상철학/ 존 라이트, 성요셉 출판사,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현대인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데이빗 왓슨, 사본 젠킨스 공저, 나침반사, △복음과 사회/ 한국 복음주의 협의회

편, 두란노서원, △사해문서 연구/ 오병세, 개혁주의 신행협회, △자유의 노예/ 박선희, 혜선출판사, △노아 홍수/ 김영철, 여수문, △주기도문 · 십계명 · 사도신경/ 이종성, 대한기독교서회, △십계명/ 캠벨 물간, 풍만, △주기도와 하나님 나라/ 필립 켈러, 한국문서선교회, △주기도문 해설/ 토마스 왓슨, 기독교문서선교회, △주기도문 사도신경 축도/ 나채운, 장신대 출판부, △사도신경 강해/ 브루스 로커비, 생명의 말씀사, △십일조/ 앨머 타운즈, 엠마오, △십계명 연구/ 아더 펙크, 기독교 문서 선교회.

■ 강해

△잠언 강해/ 박조준, 기독교문사, △공관복음서 대조비교/ 김창길 편, 맥밀란, △창조의 하나님 상 · 하/ 테오도르 예프, 바울서신사.

■ 기독교 윤리 및 철학

△기독교 윤리학 개론/ 헨리 바네트, 침례신학 대학출판부, △기독교와 철학/ K.E. 안델, 엠마오, △사랑만이 유일한 규범이다/ 조셉 플레처, 글빛, △기독교 세계관/ 로버트 · 슌, 라브리, △예절 비망록/ 이신구, 교회교육연구원, △신앙과 윤리/ 김중기, 종로서적, △율법과 윤리/ 제임스 패커 편, 백합출판사.

■ 헌신신학(신앙경건 생활안내, 간증)

△사랑하는 당신을 따라/ 바실레아 솔링크, 엠마오, △안일한 신앙의 극복/ 게리 콜린스, 한국교회 교육협회, △그리스도인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아더 펙크, 여수문, △살아계신 하나님/ 김성광 편, 무지개, △삶에는 뜻이 있다/ 폴 토우르니에, 종로서적, △주의 형상 나의 형상/ 조쉬 맥도웰, 순출판사, △믿음의 육아 일기/ 나연숙, 홍성사, △에덴의 국경/ 이진숙, 혜진서관, △한알의 밀알이 되어/ 김요나, 엠마오, △킴 워스/ 휴스티븐, 김웁스, 엠마오, △오늘을 위한 십계명/ 윌리엄 바클레이, 컨콜디아사.

■ 기독교 교육

△교회학교 교사 지침서: 절기행사 자료집/ 교사의 벗 편집부 편, 서울서적, △교회학교 교사 지침서/ 교사의 벗 편집부 편, 서울서적.

■ 교회론 및 복음성가집

△교회론/ 에드워드 혼, 컨콜디아사, △비교 교회론/ 빌 헬름 니켈, 대한 기독교 출판사, △교회와 국가/ 한국 기독교 문화진흥원 편, 대한기독교 출판사, △교회헌법 대전/ 박병진 편, 대한관, △교회, 기독교단체의 성공적 운영/ E.R. 데이튼, T.W. 앵스트롬

이, 신앙계, △늘노래와 함께(남성 보컬그룹)/ 늘 노래 편저, 엠마오, △창작곡 모음집/ 극동방송 편, 나침반사, △늘 찬송하면서/ 홍정표 편, 아가페 출판사.

■ 선교

△통일의 길목: 북한/ 박완신, 엠마오, △문화적 갈등과 사역/ 셔우드 링엔펠더, 마빈 메이어스 공저, 조이선교회.

■ 설교집(목회상담 및 예배)

△기독교 효도관/ 이윤근, 크리스찬 서적, △예수의 침묵/ 박희민, 양서각, △주기철 설교집/ 주영해 편, 엠마오, △사도신경 강해 설교/ 손봉호, 성서유니온, △신약을 어떻게 강해할 것인가/ W.L. 라이펠드, 두란노서원, △저는 너무 자주 화를 냅니다/ 김수지, 두란노서원, △찬송과 예배/ 류형기, 한국기독교문화원.

■ 기독교 사회학

△칼빈의 경제윤리/ 앙드레 비엘러, 성광문화사, △기독교와 사회질서/ 푸레드릭 캐서우드, 충신대학 출판부, △기독교와 사회/ 맹용길, 기독교문사, △기독교와 현대의 이상들/ 제람바즈, 딕 키이즈 공저, 라브리, △복음주의와 사회윤리/ 크라우스 보크무엘, 엠마오.

구역예배를 위한

충천다락방

1989년 9월 22일(금)

교구위원회 제공

제38과 바울의 옥중 기쁨

성경: 빌 1:18-20

요절: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빌 1:18)

찬송: 492, 383장

옥중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나, 바울은 옥중에서도 자신만 기뻐할 뿐 아니라 빌립보교회를 향해서도 기뻐하라고 하였다.

여기 옥중에서 기뻐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들었으니,

1. 복음이 전파됨을 인하여 기뻐함(18절).

바울은 전도하는 자가 어떠한 마음으로 전파하든지, 자기 자신이야 아무리 미움을 받든지 간에 오직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을 기뻐했다. 자신의 명예와 이해는 염두에 없고 철두철미하게 그 생활의 전부가 그리스도 중심이었다. 옥 중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전도가 잘되니 참으로 기뻐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고 한 것이나, 고린도전서 10장31절에서 "그러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한 것이 다 주님을 중심으로 한 생활의 일면이다.

2. 개심이 은혜를 더하게 했으므로 기뻐함(10절).

바울은 자기 자신이 매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옥 중에서도 이렇게 기뻐했다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인가를 여기서 설명한다. 주님을 중심으로 한 생활자로서 복음의 전파로 인하여 기뻐함은 물론이요, 또 그 개심이 자기 자신의 신앙의

은혜에 더욱 유익했기 때문에 기뻐했고 또 앞으로도 기뻐하겠다고 하였다. 그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이 일을 인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옥중고가 도리어 유익하게 되기 때문이다.

3. 고대한 소망대로 된 것이므로 기뻐함(20절).

바울이 옥중에서 이렇게 기뻐하고 기뻐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그의 옥중고가 그가 평생 고대하던 바대로 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간절한 기대란 "고대"라고도 하는데 이는 이마에 손을 대고 발돋음을 하여 멀리서부터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모양의 묘사이다. 이렇게 기다리던 대로 된 것이 어찌 기쁘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 기대가 무엇이었던가?

바울이 고대하고 원하던 첫째 소원은 모든 일에 전에도 늘 그랬듯이 지금 옥중에 있어도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기를 원했던 것인데, 그대로 된 것은 곧 옥중 생활에서도 근심이나 걱정이나 아무런 두려움 없이 기뻐하는 생활을 하여 구원에 관한 영적 축복을 더 많이 한 사실이란 것이다. 바울이 둘째로 소원하고 고대했던 것은 자기 자신이 사나 죽으나 자신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히되는 그 일이었다. 자기 자신은 아무리 작아지고 멸시를 당하고 욕을 보아도 또는 자신이 어떠한 불행한 지경에 처한다 해도 심지어 죽는 데까지 들어간다고 해도 그 일을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된다면 그것이 소원이며 그것이 고대했던 것인데 이 복음으로 인하여 그대로 된 것이니 기뻐하고 기뻐한 것이다.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 그 자체까지도 자기 자신을 중심하기 때문에 실족하는 것이다. 모름지기 바울 사도의 본을 받도록 범사에 힘써보자.

■ 함께 생각합시다.

1. 나의 기쁨과 평안의 솔직한 근거는 무엇인가?
2. 나의 삶에 진정으로 "복음을 인하여 기뻐함"이 얼마나 되는가?
3. 우리가 고대하는 소망과 바울의 소망의 차이점은?

■ 공동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이땅에 사는 동안 주님 한 분으로만 우리의 기쁨과 평안이 되게하여 주소서. 이 세상에서 무너질 것에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두지 않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